

한일 신여성의 사회참여관 연구

우정미*

(e-mail : azisai@dreamwiz.com)

目 次

1. 머리말
 2. 근대 여성과 사회참여
 3. 한일 신여성의 사회참여관
 - 3.1 참정권
 - 3.2 남녀동등 교육권
 - 3.3 계몽활동
 4. 맺음말
-
-

1. 들어가면서

근대 한일 양국의 여성들은 스스로 원하는 바이든 아니든 내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의 권리에 자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이든 단체 활동을 하든 여성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전개한다. 생활 주변부에서 시작하여 여성 교육이나 계몽 중심에서 부인해방운동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일본의 쌀소동¹⁾에서 보여지 듯 꼭 교육을 받은 여성들

* 부산대학교 외래강사

- 1) 시베리아출병이 예측되는 가운데 쌀의 매점매석이 성행하고 쌀값이 폭등하자 富山縣에서 한 어촌 주부가 쌀의 외부유출을 반대하다가 마침내 폭동으로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어떤 조직성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곧 쌀소동의 주체는 남자로 옮겨간다.

아사오 나오히로 저, 이계황 외3 역(2003), 『새로 쓴 일본사』, 창비. p.476

만이 아니라 삶의 위협을 느끼면 여성들도 힘을 모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개 단체나 운동의 중심은 교육받고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면 이러한 여성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단체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근대 신여성들의 사회 참여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사회 참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경제성 획득을 위한 직업 활동은 제외하고 권익이나 계몽, 생활개선에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로는 양국 신여성들의 사회 참여관을 비교연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부인운동의 계보나 종류 그리고 그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개별적이고, 자국에 한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여성 잡지 『신여성』(新女性)³⁾과 일본의 여성 잡지 『후진코론』(婦人公論)⁴⁾ 속에서 신여성이 담론의 주체가 되는 사회운동에 대한 기사를 분류 검토하여, 비교사 관점⁵⁾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김정연(1996), 「근우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스가하라유리(2003), 「1920년대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숙희(1987),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형숙(1975), 「개화기 여성단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혜영(2004), 「한국 기독교 여성의 민족운동」,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우(2003), 「개화기 진명부인회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미(1989), 「1920년 여성단체운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阿部恒久(1982) 成田竜一, 「婦人運動の展開」, 『近代日本の統合と抵抗』 3, 日本評論社.
 阿部恒久(1978), 「女性と米騒動」, 『女たちの近代』 拍書房.
 山本邦夫(1966), 「大正期に於ける女子の運動1,2」, 『明治大学教養論集』 30,34
 石月静恵(1980), 「婦人運動の展開」, 『大正期の権力と民衆』, 法律文化社.
 村上伸彦(1975), 「婦人問題と婦人解放運動」, 『日本歴史18』, 岩波書店.
 井上馨(1986), 「大正期における婦人参政運動について」, 『中村学園研究紀要18』.
 小野沢あかね(1995),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廢娼運動の論理」, 『歴史学研究668』.
- 3) 1923년 9월 개벽사에서 발간한 것으로 23년 9월~26년 10월까지 31호, 중간에 정간되었다가 31년 1월에 속간되어 34년 8월에 폐간될 때까지 약 42호, 도합 73권 내외가 발행되었다. 발행부수, 판매 부수, 유통 경로, 독자층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만부 정도 발행되고, 독자층은 주로 여학생이었다.
 연구공간 수유+너머(2005),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계레신문사, 부록
- 4) 『婦人公論』은 1916년 1월 중앙공론사에서 부인종합잡지로서 발행하였다. 동지는 15년전쟁하인 1944년 3월에 『中央公論』 존속과 바꾸어 폐간을 피할 수 없었지만 폐간 후 1946년 4월에 재발행된 이래 현재도 계속 발행되고 있다.
 近代女性文化史研究会(1996), 『婦人雑誌にみる大正期』, 大空社. p.12
- 5) 아날학과 블로흐(Marc Bloch)에 의해 西洋 中世史를 중심으로 実証을 들어가면서 정리한 著書 『比較史の方法』(高橋清徳 訳)에 의하면 比較史라는 것은 ‘하나 혹은 약간의 차이는 社会狀況에서 언뜻 보아 그 사이에 일정의 類似性이 存在한다고 생각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현상을

『신여성』과 『후진코론』은 여성 잡지이다. 우선 잡지라는 매체는 당시 사회상이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된다는 강점이 있고, 두 잡지는 양국 신여성의 출현을 알린 『신여자』(新女子)와 『세이토』(靑鞜)의 뒤를 이었다는 점, 당시 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반영된 잡지라는 점에서 양국 여성들의 의식 연구에 적합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현대 여성운동에 대한 원형을 제시할 것이며 근대 초기 여성의 사회 참여관에 대한 이해는 현대 여성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2. 근대 여성과 사회참여

1910년대 일본에서는 여성의 자아의식 형성기로 부인운동 준비기라고 할 수 있는데 1910년 청탁 창간은 그 개시를 고하는 사건이었다. 여성의 자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 문제에도 눈을 돌리게 되고 여성해방 문제를 스스로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신부인협회(20년3월 발족)는 10년대의 움직임을 사회 운동화했으며 부인운동을 발전시켰다. 우선 운동의 최대 관심사인 치안경찰법 제5조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22년 4월 정당연설회를 주최하여 거기에 참가할 권리를 획득했다.

1920년대 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하에서 자본주의 전개로 인한 물질문명이 크게 확장됨과 동시에 여성-주부가 생활의 주된 담당자로서 사회적인 위치를 부여 받게 되었다. 쌀 소동의 온나잇키(女一揆)는 그 같은 사회의식을 단숨에 확립시켰다. 1920년대 후반은 부인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치안유지법체제에 강하게 규제된다.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급속하게 확립된 이 체제는 천황제 및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체질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 내부에 좌파 우파의 분열구조를 창출하고, 좌파를 체제 측에 끌어당기려고 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관동대지진과 대공황 아래 극도로 심각한 생활난에서 가정경제를 지키려는 운동이 여성들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정을 발판으로 하는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⁶⁾

한국의 여성운동 내지 여권 운동은 그 시대적 배경이 일체치하였으므로 서구

가려내고, 골라 낸 현상 각각의 發展過程을 証明하고, 그것들 사이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確定하고, 가능한한 類似 혹은 差異가 發生한 理由를 説明하는 것'이라고 했다.

マルク・ブロック著 高橋清徳 訳(1978), 『比較史の方法』, 創文社. p.2

6) 阿部恒久(1982), 「婦人運動の展開」 『近代日本の統合と抵抗3』 日本評論社. pp.217-220

와 달리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그 최대의 과제로 삼은 점에서 일종의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당시의 한국은 외래 세력의 압박에 있었으므로 여성들은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것 보다는 먼저 조국을 외래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였다. 즉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여성 운동은 여권 신장을 위한 운동도 아니고 여성 해방 운동도 아닌 한국 사회의 특수 사정 내지는 시대적 배경에 의한 민족운동 내지는 독립운동이었다. 따라서 일제 치하에 있어서 한국의 여성 운동은 남자와 대립적 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192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기능별로 세분화된 여성 단체가 나타났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 단체의 조직이 구체화하였다. 독립운동 전까지의 여성 운동은 주로 기독교 계통의 여성 근대화 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3·1운동을 기하여 한국 여성 운동은 단순한 신문화 여성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해방의 시급함을 깨닫고 정치적 방향으로의 눈부신 활약으로 나타난다.⁷⁾ 3.1운동이후 한국인들은 문화운동이란 형태로 일본에 대항하였는데 이는 여러 단체를 중심으로 구습타파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민족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각종 여성단체가 잇따라 설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여성들 역시 인습타파, 교육,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⁸⁾

1930년 이후부터의 한국 여성 운동은 1920년대에 비하여 절망적이었다. 1920년-1930년대에 이르는 각종 여성단체의 사회 참여를 통한 많은 계몽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에 있어서의 근대화는 매우 부진했다. 각종 여성단체의 활동과 부르짖음은 우리 여성의 문화적 면에 많은 계몽을 가져왔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 참여 운동도 몇몇 지식층의 여성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여성에게 사회적 지위를 확립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⁹⁾

3. 한일 신여성의 사회참여관

3.1 참정권

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여권이 확장되는 데, 그 영향이 아시아여성의

7) 안선호(1976),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사적 고찰」 『법경논총』 11호. pp.142-146

8)菅原百合(2003), 「1920년대의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 석사논문. p.3

9) 안선호(1976), 앞의 논문. p.148

각성에 많은 자극이 되었다. ‘부인의 각성을 기다리는 것을 오늘날만큼 급했던 때는 없다.’¹⁰⁾ ‘權利를 빼앗긴뒤에 빼앗은者가 얼른 내주는법은 극히적이다. 빼앗긴者가 다시차저내야만 되는것이다...(중략)..도로차질이는 女子自身이다. 男子의 同情이나 救助도 바랄것이못된다’¹¹⁾ ‘자각(自覺)이 필요합니다. 렬더한자각이잇서야합니다. 세상에나아와 사업을하거나 집안에들어가살림을하거나 또는 전문이상의공부를하거나 범백사에 먼저필요한것이 렬더한자각입니다. ’¹²⁾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 스스로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것은 모든 발달의 출발점입니다.’¹³⁾ 그러나 자각만으로는 사회적인 권리를 가지기에는 부족하니 여성들의 힘을 모아 단체운동으로 그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우선 먼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을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회 후보자를 선택하는 길이다.¹⁴⁾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로는 ‘부인에게도 공민의 자각이 필요하기 때문.’¹⁵⁾이고, ‘모든 체계-개인생활, 가정생활, 국민생활, 세계생활-에 새로운 창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외의 어떠한 권력에도 압도되지 않을 만큼의 자유 독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창조능력을 이용하여 모든 생활 체계에 공헌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이 능력을 개전(開展)할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권리 즉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¹⁶⁾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제반적인 부인문제를 포함하여 자선운동이나 금주운동, 폐창운동 등의 문제 해결에도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890년 ‘집회 및 정사법(集會及政社法)’ 5조 1항과 2항에 여성의 정당결사 가입과 정치 연설회 참가를 금지하고 있고, 1900년 이 법은 ‘치안경찰법’으로 개칭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규제는 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개정 없이는 여성들의 참정권의 진보는 기약할 수 없었다.

10) 婦人公論, 1919.4권.3호 「我國の婦人參政權問題」, p.4

11) 新女性, 1925.3권.2호 2월호 「人間本位の 婦人問題」, pp.2-5

12) 新女性, 1924.2권.3호 4월호 「女學校卒業生들에게간절한부탁한마디」, pp.18-20

13) 婦人公論, 1918.3권.5호 「われ等の行くべき途」, p.28

14) 婦人公論, 1916.1권.1호 「現代婦人の行くべき道」, pp.1-8

15) 婦人公論, 1919.4권.3호 「普通選挙の話」, p.83

16) 婦人公論, 1919.4권.3호 「婦人も選挙権を要求す」, p.9

부인 참정권운동이 치안경찰법 제5조에 의해 구속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일본 부인계에 있어 부인참정권운동은 명백히 불가능한 사실이다.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호별방문하거나 제국의회 2층에서 실제 정치를 방청할 수 있는 일본 여자가 근처 공회당이나 극장에서 개최되는 정당 집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여자는 참정권운동을 위해, 우선 이 비민주적이고 비문화적인, 비인격적인, 치안경찰법 제5조 여자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 당면의 급무이다. 여자는 우선 청원에 의해서 이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악법을 없애기 위해서 크게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¹⁷⁾

치안경찰법에 의해 구속을 받고 있는 이상 부인참정권 운동은 불가능하니 그 철폐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정치 법률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가 이끄는 신부인협회¹⁸⁾의 노력으로 1922년 45회 의회에서 치안경찰법 제5조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女子及’¹⁹⁾이라는 석 자가 삭제되었다.

여자도 정담연설회에 출석하고 또 발기인이 되고, 혹은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은 일이지만, 사실은 일본에 있어서 부인참정의 일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²⁰⁾

치안경찰법의 개정으로 여성들도 자유롭게 정사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고, 의회로 진출하여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하였지만 1925년 보통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여성은 제외되었다. 여성의 선거권은 1945년 일본

17) 婦人公論, 1919.4권.12호 「過去一箇年に於ける我国婦人思想界の回顧」, p.14

18) 新婦人協會(1919.11.24-1922.12.8)는 부인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획득을 목표로 하여,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오쿠무메오(奥むめお)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 최초의 부인단체이고 이 협회와 관련하여 화류병남자결혼제한청원(花柳病男子結婚制限請願) 운동과 신부인협회에 공명하여 여교원들을 중심으로 히로시마 현 내에 결성된협회지부에 현(県) 당국에서 압력을 가한 히로시마(広島) 사건, 치안경찰법 5조개정운동(治警五条改定運動)이 유명하다.

19) 治安警察法 제5조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治安警察法第5条

第五条 左ニ掲クル者ハ政事上ノ結社ニ加入スルコトヲ得ス

一、現役及召集中ノ予備後備ノ陸海軍軍人

二、警察官

三、神官神職僧侶其ノ他諸宗教師

四、官立公立私立学校ノ教員学生生徒

五、女子

六、未成年者

七、公權剥奪及停止中ノ者

2. 女子及未成年者ハ公衆ヲ会同スル政談集會ニ会同シ若ハ其ノ發起人タルコトヲ得ス

20) 婦人公論, 1922.7권.5호 「婦人参政の第一歩としての治警改正」, p.1

패전 후 미군정에 의해서 주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에서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참정권 획득 보다는 오히려 생활개선 운동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참정권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 필요한가를 강조하여 주지시키고 있음은 당시 시대적 조류에서 한국도 비켜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기사들은 남자와 같은 인격체를 가지면서도 사회적인 불평등, 동등하지 않은 권리가 여성들에게 있으며, 그것을 찾으려면 여성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女子도 自由를 가진 人格이다. ...(중략)... 男子의 가질만한 自由를 女子도 가질 수 있는 것가티 男子의 가질만한 權利면 女子도 지어야할 것은 勿論입니다. 機會를 充分히 엿지못하게됨은 男女差別上 習慣에 基因됨이 甚히크다하지마는 그 習慣이일즉 撤廢된 社會에서라도 亦然함은 다른 까닭아니라곳 女子에게 特權이요 또 免하지 못할 天職인 子女生産教育의 責任을 가진 까닭이라 고하겠습니니다.²¹⁾

甚한差別이잇거니와 今日의朝鮮에는 特히이것이甚하다. 첫재로女子는 法律上에잇서서 未成年者나또는禁治産者와 꼭가튼待遇를맞는다.男便이잇는女子는 男子의承諾이업시 남과契約할權利가업고 財産을處分할權利가업고 子女에게처하야 男便과同等의親權을 行使하지못한다.²²⁾

신여성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균등(均等)한대우를주지안는다. 정치에참여할 권리가업고 교육에도균등이업스며 심지어연애에이르기까지 자유가업다. 그럼으로여러분은 련애에도 자유가잇서야하고 정치에참여하야 자기들의리해관계를따라 당연히버릴것은버리고 취할것은엇도록 해야될것이며 위선사람의 지적(知的)소양에 가장중요한 교육(教育)덕방면에도 절대의균등이잇도록 로력해야 할것이다. 그에게서남녀의동등이 참으로실현되고 세상은그만큼 리상에갓가워질것이다.....(중략)...그러니이제부터라도 녀자가참된해방을 원한다하면 또는 참된자유를 찾고저한다면 생활운동에서 시작지 안으면 안된다고말하고십다.²³⁾

참정권 요구를 위한 한일 양국 여성들의 모습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단체를 만들고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법률개정에 주력하지만 한국은 이미 주권을 상실한 나라였다. 그 상황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참정권을 얻기 위한 활동에는 제약이 있지만 여성들도 참정권을 가져야 하며, 가지기 위해서

21) 新女性, 1924.2권.8호 10월호 「婦人參政權問題」, p.15 p.20

22) 新女性, 1926.4권.3호 3월호 「婦女의社會的地位」, p.9

23) 新女性, 1926.4권.4호 4월호 「女學生여러분에게告하노라」, p.7 p.8

는 우선 여성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침체적인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국의회가 출범한 이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고, 다이쇼데모크라시라는 분위기 속에 소수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성들도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회원이 되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대표자를 의회로 보내고자 했고, 의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에 치안법 개정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3.2 남녀동등한 교육권

근대 일본에서의 여성교육은 1872년 학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1886년에는 소학교 4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1897년에는 여자 취학율이 50%를 넘어섰다.²⁴⁾ 1899년에는 고등여학교령으로 각 현에 고등여학교가 설치되어 남자에 비해서 부족하나마 여성에게도 근대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공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1886년 이화학당으로 시작되는 미선계 여학교와 찬양회에 주도되어 설립된 순성여학교를 비롯한 민간계 여학교가 여성의 교육을 주도하였다. 관립여학교인 한성여학교는 1908년이 되어야 설립된다.

한일 양국 여성 교육은 전근대적인 상황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자 중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여학교의 수업의 수준은 남자 중등교육에도 못 미칠뿐더러 여성의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다. 이것에 대하여 남녀 동등한 교육과 고등여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 여성 교육의 실제 모습은

현재의 여학교 교육은 결혼을 유일한 목적으로서 아버지의 손에서 남편의 손으로 넘겨지는 부인을 만드는 것에 잘 맞추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중등정도의 학교에 진학하면 남녀 생도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학 국어 물리 화학 교과서는 특별히 표지에 여자인거나 여자용이라는 문자가 붙여져 있어 여학교 교육 정도는 남자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²⁵⁾

위와 같은 교육 속에서도 여성들이 의식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기사인데

24) 土屋忠雄 외2(1993), 『日本教育史』, 学文社. pp.352-354

25) 婦人公論, 1921.6권.8호 「公開状」 「文部大臣中橋徳五郎氏へ」, p.46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여자도 남자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의 실력 수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교육상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 또 여자의 직업도 종래보다도 더 넓은 길을 열려고 하는 등의 경향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자각은 억누르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니, 오히려 그 길을 개척해가야 한다.²⁶⁾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여성들도 가지고 있고, 여성 스스로 실력 수양이 필요하고, 교육, 직업의 확대를 기대하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부인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들을 원래 능력저급하다고 보는 것은 근거없는 망상이다....(중략)지금의 남자의 고등교육만을 획책하고 부인을 위해서는 하등의 대학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천만이다. 남자를 위해서는 3,4개의 대학이 있고, 1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부인을 위해서 동급의 학교를 하나도 설립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²⁷⁾

위의 기사에서는 더 많은 여학교가 설립되어야 하고, 여성을 위한 상급학교 또한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여자 학제를 개선해야 하고, 수업 내용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수준 또한 남자와 동등해야 한다고 아래의 기사에서 말하고 있다.

남자 중학교보다도 저급한 열등여학교를 고등여학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현재 고녀를 바꾸어 여자중학교로 칭하고 졸업생은 남자 중학 졸업생과 같은 정도의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부인이기 때문에 학과를 평이하게 하는 것은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다.²⁸⁾

또한 ‘실과고등여학교는 물론 고등여학교에 있어서도 여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데까지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²⁹⁾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남녀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이 원활하도록 많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여성들도 배움의 장이 확대되는 것과, 배움의 질이 현실에 적합하고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기를 원했다.

26) 婦人公論, 1919.4권.8호 「世界の舞台に出た日本婦人の使命」, p.41
27) 婦人公論, 1919.4권.9호 「早稲田慶応の門戸開放は単に其序幕のみ」, p.16
28) 婦人公論, 1919.4권.9호 「早稲田慶応の門戸開放は単に其序幕のみ」, p.17
29) 婦人公論, 1918.3권.3호 「日本婦人! 社会的に眼を開け!」, p.30

女子도사람인以上에는 女子다운教育을한다는것보다는 사람다운教育을하여야 될것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다운品格을유지케하라면 不可不 獨立된 生活을 維持할만한 能力과 技能부터 鍛鍊하여야될것이외다³⁰⁾

또 여학생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아래와 같은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조선여자교육도날로날로 진보되고 딸하서 넷달녀학생의 보통과졸업을 만족하던것이 오날에잇서서는 고등보통학교도 만족치를아니하고 더욱더욱 상급 학교로 가려고하는경향! 다른무엇보다도 일반학과에힘쓰는것을 엿볼수잇습니다....(중략)....지금의 녀학생들에게는 기예(技芸)보담도학과(学科)를더 요구합니다.³¹⁾

그러나 실제의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여자 중등교육의 질은 남자 중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³²⁾ 실제성과 현실성에서 벗어난 교육³³⁾에 아래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오늘날學校와 会社와는全혀分離되어잇습니다 學校는學校대로社會와는 아조따른 別個의立체로되어잇습니다 우리學校教育은너무나 封鎖的이고 保守的이라 는거슨 一般社會가아는바입니다만은 우리를 가르키는 女學校들은 너무나 封建的態度를取합니다 社會를버서나는學校의教育이무슨必要가잇겟습닛가³⁴⁾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도 진학할 학교가 없었다.

참말로 입학할곳이업는것이사실입니다. 보통학교우에 소위 고등보통의五년급이잇는외에 소학교교원양성소인 사범학교가한가지밖게는 여자를위하야의시설이하나도업습니다. 새로운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녀성은 결코 편지나장이나쓰고 신문나장이나보는지식으로 브억이나직혀주는예전식현처(賢妻)는아니입니다. 엇더케고등보통학교뿐으로 될수잇겟습닛가 고등보통학교이상의 여자교육 시설이하나도업는것이 소위사회유지자들사이에 의론거리도되지못하는것을보면³⁵⁾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가 필요하고, 아울러 고등보통학교를 나누어서 초급3년, 고급3년으로 할 필요가 있으

30) 新女性, 1925.3권.1호 1월호 「내가女學校當局者이면」, p.18

31) 新女性, 1925.3권.1호 1월호 「十年前女學生과 只今女學生」, pp.15-16

32) 新女性, 1931.5권.4호 5월호 「女學校卒業生移動座談會」, pp.66-69

33) 新女性, 1933.7권.1호 1월호 「処女座談會」, pp.19-20

34) 新女性, 1926.4권.1호 1월호 「社會科學을우리에게」, p.12

35) 新女性, 1925.3권.11호 11,12월합본 「新女性의五大煩悶」, pp.14-27

며, 교육의 내용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³⁶⁾고 주장한다. 교육내용 중에는 ‘모성중심교육’을 피력하는데 그 이유로 ‘긴급한 국민에게는 무엇보다도 만혼 조혼 어머니가 필요하다’³⁷⁾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권을 상실한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양국에 있어서 고등여학교는 남자 중학교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은 남자 중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면서 이름만 고등여학교라 한 것은 여자가 이 정도 배우는 것은 고등과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근대 초기 여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만들 때 남성의식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중등정도의 수준을 마친 여성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은 양국 다를 바가 없다. 교육 수준 향상과 학교제도의 개선이 급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다. 다만 양국의 차이라면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시작한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동시대 여자 식자층이 한국보다 훨씬 컸었고, 학교 수도 많았다. 교육의 내용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민족교육과 차세대를 위한 모성중심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3.3 계몽활동

1910-20년대 일본 사회는 다양한 계층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였다.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활동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참정권 요구나 동등 교육권을 요구하는 등 권리 획득을 위한 사회참여 외에도 개인적인 힘으로 사회 계몽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1) 여자의 경제적 독립은 모성이 보호되고 자녀를 낳고 동시에 키우는 것이 공적인 사업이 되고, 국가가 모친에 충분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만이 부인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사이에 일어나는 힘든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제가 불 때는 모성 보호야 말로 여자의 경제적 독립을 완전히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모성을 보호하지 않고 여자의 경제적 독립을 말하는 것은 공론이다.³⁸⁾

2) 폐품이용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경제의 한 부분으로 얘기해도 소극적인 경제이다. 폐품 이용을 가정적으로 행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폐품을 폐품으로 하지 않고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면으로 넘기고 사회적으로 폐품이용의 길을 찾아야 한다. 폐품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머릿속에 두어야 할 일은 분명

36) 新女性, 1931.5권.5호 6월호 「女子教育改新安」, pp.8-12

37) 新女性, 1925.3권.1호 1월호 「내가女学校当局者이면」, p.19

38) 婦人公論, 1918.3권.8호 「母性保護問題に就いて再び与謝野晶子氏に寄す」, p.41

하지만 가정적으로 폐물 이용보다는 사회적 국가적인 폐품 이용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39)

3) 공창은 정부가 인정한 것이고 이것을 갖고 노는 것은 남자의 특권이다. 동시에 죄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부덕문란의 죄악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도덕 유린이 어디에 있겠는가?40)

1)은 모성보호 논쟁에 있어서 국가가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히라쓰카의 주장이다.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던 논쟁이었고, 2)는 폐품이용을 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3)은 메이지 시기 때부터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던 공창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인의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산아제한은 필요한데, 이것이 비도덕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가족의 입장에서 보아도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도 또한 국제상에서 보아도 상상이상으로 중요하다41)는 산아제한 운동이 있다. 이 외에도 신부인협회가 주관했던 ‘화류병남자 결혼제한청원’운동이 있고,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려는 수평사 운동에도 관심과 동조를 하고 있다.

일본 여성의 다양한 사회관심도와 참여에 비하면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는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생활개선이나 농촌부인 계몽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우리네의衣服은身體發育과自由動作에障礙가업지안타 鬚를들면女子의옷은第一重要한部分인乳房을束縛하여왔다 그것은衛生에도多大한害毒이밋칠뿐더러肉體美에도적지안은損失이다 그뿐아니라 풀을먹여서죽어라하고 다되미질을하야풀칠한白紙帳가튼옷을걸치는것이空氣流通에는利害關係가밋친다할지라도 第一몸을動作하는데에거북살스럽고 쉽게傷하는弊가있다 그외에긋칠것이만치마는 그것을먼저改良에着手할必要가있다42)

위의 내용은 한복의 불편함을 개량하여 건강상과 편리함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이런 생활 개선 운동과 더불어 농촌 여성에 대한 계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데 우선 왜 농촌 부인을 계몽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제기를 들여다 보면

39) 婦人公論, 1918.3권.8호 「廢物利用展覽會を觀る」, p.62

40) 婦人公論, 1921.6권.3호 「芸妓春奴さまへ」, p.23

41) 婦人公論, 1920.5권.8호 「我國の現状に照して觀た避妊不可論」, pp.41-42

42) 新女性, 1924.2권.11월호 「美觀上으로보아서」, p.9

朝鮮女性은無知에만이우렸다 더욱農村婦人은貧窮에도우렀스려니와 無知에도만이우렸다 無知한農村婦人들의앞에는 暗黒과破滅만이잇고 光明과創造가엿다. 農村婦人의自覺이잇고 그들이動하는때가 우리女性에活氣가돌고 그리고우리의運命이決定될것이다. 그들의계知識을준그것이 무엇보담도우리의急務임을아라야겠다⁴³⁾

농촌 부인에게 지식을 주고 그들을 일깨우는 것은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각 위에 ‘農村의早婚의惡習부터 打破할것, 食物과營養價值에대한常識을 發達식할것, 衛生에 對한思想을 涵養식할것, 運動에 對한觀念을 振作식할것, 産前産後에 對한攝養方式을 知得케할것, 睡眠과 娯樂의 機會를 지을것⁴⁴⁾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우리婦人運動의入口인啓蒙運動으로부터 始作하자. 우리가學校에서받은教育, 至誠그것을다시鄉村에잇서學에주리여하는文盲의女性들에게가르켜주자 깨우쳐주자 高尚한科學의知性이所用되지안는다. 오즉初歩이니諺文뿐이라도좃타.⁴⁵⁾

농촌의부녀를모아놉코 강습회를하십시오 누에를쳐보십시오 밭태가서 어머니와가티 김을매십시오 어린동생들과가티 강변에나아가 소나말를먹여보십시오 흙냄새를 슬긱맛터보십시오 그리하여 자연의 맛이엇던가 농촌의맛이엇던가 도회처에비해서 얼마나 조흔가를 실지로 체험해보고⁴⁶⁾

이런 계몽활동에 힘입어 여학교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야학을 열어 언문을 가르치고, 위생관념도 고취시키고, 각성시키고자⁴⁷⁾ 하였다. 또한 아래의 기사가 말하는 부인과 건강한 자녀를 위한 산아제한 운동도 있었다.

인유의반수를 점영하고잇는부인의행복을 일우게하며 출생된자녀에게대해서도 어머니로서의 완전한책임을 다하게하여 무제한한출산(出産) 때문에 죽어엄서지는 어머니와 子女가 屢시할수일슬뿐안이라 넘치는출산으로해서생기는 모든 사회적해악을 소멸식할수가잇다⁴⁸⁾

일본 사회 특수적인 폐창운동이나 수평사 운동을 제외한 모성보호운동, 폐품

43) 新女性, 1926.4권.1호 1월호 「농촌부인과계몽운동」, p.40

44) 新女性, 1925.3권.1호 1월호 「緊急動議합니다」 농촌여성문제에대하여, p.8

45) 新女性, 1925.3권.8호 8월호 「鄉村에도라가는女學生諸君에게」 pp.2-5

46) 新女性, 1925.3권.8호 8월호 「시험삼아호미(鋤)를쥐여봅시다」, p.11

47) 新女性, 1925.3권.8호 8월호 「夏期休暇에歸鄉하는京城女學校學生의抱負」, pp.13-16

48) 新女性, 1932.6권.3호 3월호 「朝鮮女性과産兒制限」, p.12

활용, 산아제한, 소비자운동 같은 것은 미약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러한 운동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그것과 같은 사회적인 관심을 모아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 인권의 보호, 모체의 보호를 기조로 하는 계몽적인 글들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여성들은 농촌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무지한 농촌 여성들을 일깨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글자를 깨우치는 것이라 여겨 여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들이 농촌 여성들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일깨워 주려고 했다.

4.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회참여 할 때 다양한 잣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참정권 요구와 남녀동등 교육권의 요구, 계몽활동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참정권 요구에서 일본여성은 참정권을 얻기 위한 노력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치안경찰법 5조 1,2항의 개정을 하였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입법의 장으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은 국권 회복이 되지 않은 시기라서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론적인 알림의 노력은 있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양국 여성들이 요구한 남녀동등 교육 요구는 비슷했다. 이름은 고등여학교이나 실질적인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남자의 교육 수준에도 훨씬 떨어져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없는 교육에 대한 비판과 남녀 동등한 교육 요구는 양국 여성들의 의식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여성에게는 민족의식과 차세대를 위한 여성교육이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계몽활동 면에서도 일본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나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단조롭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제 방면의 계몽의식 고취는 있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미비했다. 그렇지만 농촌부인 계몽운동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그것은 한국 여성들에게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었다.

1910-20년대 일본의 활발한 단체 활동의 영향은 한국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긴 하나 한국은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운동 이전에 사회 운동 자체가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이후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통치방법의 전환을 계기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그것을 이끄는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긴 하나 일본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성과 실천성에는 미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参考文献】

『婦人公論』 1916년 발간

『新女性』 1923년 발간

- 김정연(1996), 「근우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영숙(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스가하라유리(2003), 「1920년대 여성운동과 근우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아사오 나오히로 저, 이계황 외3 역(2003), 『새로 쓴 일본사』, 창비 p.476
안선호(1976),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사적 고찰」, 『법경논총』 11호 p.148
오숙희(1987),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형숙(1975), 「개화기 여성단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구공간 수유+너머(2005),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계레신문사, 부록부분
윤혜원(1984), 「現代日本女性運動」, 『아세아여성연구』 Vol.23
장혜영(2004), 「한국 기독교 여성의 민족운동」,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숙(1989), 「대한제국말기여성운동의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선우(2003), 「개화기 진명부인회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미(1989), 「1920년 여성단체운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近代女性文化史研究会(1996), 『婦人雜誌にみる大正期』, 大空社 p.12
土屋忠雄 외2(1993), 『日本教育史』, 学文社 pp.35-354
マルク・ブロック著 高橋清徳 訳(1978), 『比較史の方法』, 創文社 p.2
阿部恒久·成田竜一(1982), 「婦人運動の展開」, 『近代日本の統合と抵抗』 3, 日本評論社 pp.217-220
阿部恒久(1978), 「女性と米騒動」, 『女たちの近代』, 拍書房
石月静恵(1980), 「婦人運動の展開」, 『大正期の権力と民衆』, 法律文化社
井上馨(1986), 「大正期における婦人参政運動について」, 『中村学園研究紀要18』
小野沢あかね(1995),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娼妓運動の論理」, 『歴史学研究668』
村上伸彦(1975), 「婦人問題と婦人解放運動」, 『日本歴史18』, 岩波書店
山本邦夫(1965, 1966), 「大正期に於ける女子の運動1,2」, 『明治大学教養論集』 30,34

要 旨

近代における韓国と日本の女性たちは内外的な影響をうけながら自らを自覚するようになる。本考は職業活動を省き権益と啓蒙、生活改善活動への参加という範囲の中で両国の新しい女の社会参与観を婦人雑誌である『婦人公論』と『新女性』の記事をもとにして調べてみた。当時、両国女性が共通している特徴は参政権要求、男女同等の教育権要求など啓蒙活動の分野で女性たちの活動は積極的であった。参政権について日本は限られている環境のなかでも政党加入、集会に参席できる法律的な根拠を獲得したが韓国は国権のない状態であって積極的な活動はできなかったが理論的に分かろうとした。男女同等の教育を要求するのに韓国と日本はほとんど同じである。これは当時、すでに両国女性の意識が成熟していることをあらわすことだと思う。教育内容については韓国女性には民族意識の高揚と次世代のための女性教育すなわち母性教育を強調する面があった。啓蒙活動の面では日本は多様な方面に関心をもっていて、実際の活動にも積極的であるが韓国は日本の女性にくらべると簡単であった。日本の影響をうけながら諸方面への啓蒙意識はもっていたが行動力はあまり高くなった。しかし農村の婦人啓蒙運動には積極的に参加していた。それは韓国の新しい女たちには一種の使命感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

1910-20年代、日本の活発な社会諸運動は韓国社会にも多くの影響を及ぼしたが、韓国は植民地の状態であったので女性自身の諸運動(諸活動)以前に社会運動そのものが日本から制限されていた。しかし3・1運動以後から日本の文化政策の下で女性の社会参与は活発になったが日本の女性が持っていた多様性と行動力までは及ばなかった。

キーワード；新しい女、『婦人公論』、『新女性』， 参政権、 教育権、 啓蒙活動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